◉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감사할 따름입니다. 교회 100년의 역사는 새로운 소명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50년 이상 섬겨오신 분들(김정섭 구성실 이정은 윤정덕 정두리 이인웅 문금석 김춘려 조병주 방문성)께 기념패를 드립니다.

오후 1시 20분에 교회 마당에 100주년을 기념하여 나무를 심습니다. (김남홍, 이재문 권사 기증)

오후 2시부터 찬양대, 참빛 찬양대, 연대 교수 중창단이 참여하는 기념 음악회가 열립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을 간략히 보고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김준우 목사님께서 교회 설립 100주년을 기뻐하며 번역하신 책 <<예수의 평화영성>>을 각 가정에 선물로 드립니다. 환경부가 만든 비누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어드린 성경찬송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십시오.

<십자가 그림 전시회>가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5월 7일(수)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박준규(박창운/허정윤 권사의 장남)·서지영 씨가 결혼합니다.

일시- 5월 10일(토) 14시 30분,

장소- 엠 아모리스(메리츠타워, 강남역 2번 출구)B1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깊은 사랑이 깃든 신앙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100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아버지 하나님, 푸른 언덕에 세워진 당신의 교회가 설립 백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그늘이 이 땅에 드리워질 때 주님은 복음의 작은 등불을 이 곳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빛은 점점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오랜 세월 거센 풍랑에도 꺼지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저희가 백년의 시간만 자랑하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전을 통하여 전해진 귀한 빛이 우리를 통해서도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겸허히 살피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꿈꾸지만 전쟁의 소문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총알과 미사일이 오가는 전쟁터도 있지만 비뚤어진 욕망과 폭력적인 언행이 오가는 일상의 전쟁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생명과 평화의 일꾼으로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성전을 묵묵히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구명자 김용진 박효선
김일랑 이은옥 김신옥 김중수 이순정 김지윤 박영희 방 민 신윤정
오진훈 노순옥 윤영원 이선희 이광용 형인순 임승동 백혜숙 왕성환
강순배 정미경 김지호 최윤희 권미숙 홍복순

월정헌금:
김 극 김명순 서정순 안길상 왕수명 이동천 이병철 김현진 장재영
김재영 최철수 곽권희 이소순 김순자 이은자

감사헌금:
조병주 임원민 왕성환 강순배 이선희 김신옥 황원순 김병희 최문희
심소재 오래된 미래 무명5

생일감사헌금: 강금순 이정규 김재광

100주년 기념헌금 :
권미숙 박애순 김중수 이순정 김 진 김근종 정옥영 김명순
제2여선교회 무명3 (100주년 헌금 누계 : 189,485,000원)

	장 혜 숙	장 혜 숙	연 합 속 회	김 정 섭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윤 수
	임 정 자	임 정 자		서 원 금
	문 영 혜	박 경 선		김 명 순
	안 정 숙	박 애 순		박 옥 순
	박 홍 재	곽 권 희		박 홍 재
	박 효 선	허 정 윤		임 미 심
	최 숙 화	권 미 정		이 갑 재
	이 순 정	김 금 순		이 봉 옥
	이 형 숙	권 미 숙		김 필 순
	안 홍 숙	오 현 정		박 찬 정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영 선
	송 양 진	유 경 순		김 혜 권
	이 영 란	박 미 영		야 외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항 미

백년의 나이테를 속에 감추고 자라는 나무처럼

—하나님과 한 호흡으로 숨쉬어 온 청파교회 100주년에 부쳐

그대 안에, 그대 심장보다 더 가까이 있는
성스러운 빛을 항상 신뢰하기를.
그 빛 속으로 거추장스런 옷을 훌훌 벗고/알몸으로 나아가기를.
그대 아침마다 해님과 어깨동무하고 길을 나설 때
언제나 행낭이 가볍기를.
행여 길을 걷다가 지치거나/불면의 괴로움으로 뒤척이는
영혼의 그믐엔 고요히 무릎 꿇기를.
자주 고독 속으로 들어가/바위처럼 입을 닫고 하늘에 귀 기울이기를.
무변허공에 둥지를 틀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덜 갖고 더 많이 존재하기를.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천금같은 이 순간을 놓치기 말기를.
땅에 떨어진 금화를 줍느라
별들의 황홀한 음악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꽃 피고 지는 소리,/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작은 풀벌레 소리에도 자주 감동하고
자비의 옷감으로 짜여진 우주에 늘 감사하기를.
뭘 좀 안다고 우쭐대지 말고
모름의 신비와 /생명의 경이를/연인인 양 뜨겁게 껴안기를.
그대 영혼의 스승의 부름에 순명하고
생명의 빵을 곁님들과/나누는 데 인색하지 말기를.
그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한 숨결의 생명임을 항상 기억하기를.
한결 같은 젊음을 지니신 창조주를 닮아
백년의 나이테를 속에 감추고 자라는 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고 정정하기를.(고진하)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　　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　　휘 : 윤주원　안홍숙　　**반　　주**: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말씀의 길은 힘들어도 꼭 가야할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을 힘써 행하십시오. 말씀이 힘이 되고 반석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반석 삼아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삶이 가져다주는 큰 문제들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이웃들에게 또 하나의 작은 반석이 되겠습니다. 백년의 역사를 지나 새로운 백년을 내다보는 청파의 교우들과 이 복된 길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100주년 기념 음악회 / 감사 예배	5월 기도의 밤
집례 / 김기석 목사	인도 / 김재흥 목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예배위원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하진솔 선생 조병무 장로	인도자 김재흥 목사

5월	영접위원	방문성　이인웅　문홍일　정경례　이영란　김진경
	헌금위원	윤석철 백혜숙(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공동체 건설

오늘 우리의 삶은, 최근 예수회 문서에서 밝혔듯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서로를 섬기며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형제들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는 곳을 가리키는 표징들을 성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간다.” 예수회원들은 묵상기도를 함께 나눔으로써,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좀더 잘 따를 수 있다. 이런 이상을 이루기가 쉽지는 않다. 날마다 힘들게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솔 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기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판판이 실패를 맛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은총의 순간들이 우리의 고된 삶을 간섭한다! 그리고 함께 가는 우리의 여정은 영적 축복으로 풍요로워진다.

역사상 위대한 평화운동가들은 자기 자신을 공동체로 에워쌌다. 성 프란치스코는 ‘작은 형제회’를 만들어 이 공동체가 가난하게 유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형제로서 함께 살도록 했다. 도로시 데이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일을 좀더 쉽게 해주려고” ‘가톨릭 일꾼회’를 설립했다. 마하트마 간디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을 방문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의 힘을 보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남아프리카 더번에 그의 첫 아쉬람을 건설했다. 토마스 머턴은 혼자 있기를 소원하여 숲 속 은수처로 들어갔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수도 공동체에 두었다. 그는 수도원이 없으면 자신이 유실되고 말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복된 공동체 생활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수고와 관대함이 요구된다. 그것은 날마다 계속되는 싸움이다. 동료가 당신의 결점이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하여 고치라고 할 때 당신은 수치를 느낄 것이다. 당신이 피하고 싶은 사람들과 부딪히라고 공동체가 강요할 수도 있다.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함께 기도하고 생각과 삶을 나눌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보살펴 주고 속에 품었던 앙심을 풀어버리는 법을 배운다. 공동체 생활이 비록 하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순수한 은총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기도 한다.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눠야 한다. 공동체 삶은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주고 보살펴 주며 참을성 있게 곁에 있어 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상처 입은 식구가 있을 때 더욱 그렇다.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고 기쁜 일을 축하해 주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함께 모험에 뛰어들고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용서할 때, 공동체는 번창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체험을 더불어 나눌 때 공동체는 꽃을 피운다. 함께 살고 먹고 일하고 물품을 공동으로 쓸 수 있겠지만, 깊은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저 같은 여관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처럼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사람들과 더욱 깊이 결속하게 되고, 그리하여 새롭고 풍요로운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활동하실 때, 공동체는 더욱 힘있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공한다. 은총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살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해방된 존재임을 깨닫는다.

그런즉, 공동체 삶은 우리에게 가슴속 무장을 해제하고 그렇게 무장해제된 사람들로 원(圓)을 이루어 그 안에 전 세계를 담을 수 있을 때까지 더욱 큰 원을 만들라는 도전으로 다가온다.

우리 모두 저마다 자기 주위에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식구들이 서로 존중하고 돌보고 섬긴다면 가정이 비폭력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동료들 간에 친절과 존중이 오간다면 직장이 바로 공동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와 봉사의 공동체인 것이다. 우리 모두 공동체를 세울 필요가 있다. 살아 있는 동안 신앙 생활을 계속하려면, 교회나 회당이나 사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을 붙들어 줄 믿음의 동지들과 손을 잡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헨리 나웬이 말한 바,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가슴(마음) 공동체(community of the heart)’를 설립한다.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평화의 은덕은 전 세계에 미친다.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들에 접속되고, 그 공동체들은 또 다른 공동체들에 접속되어 마침내 지구적 평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함께 살고 함께 일함으로써, 충만한 삶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한다.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삶은 우리를 평화로 이끈다.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동체 삶을 경험하고자 할 것이다.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 존 디어, <<살아 있는 평화>> 중에서